

<신흥무관학교 설립 1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공군 창건의 주역이신 노백린 장군 서거 100주기를 맞는 특별한 해에 공군사관학교에서 오늘 기념식을 개최하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신흥무관학교는 나라를 되찾기 위한 의지의 표명이자, 주권을 지켜내겠다는 대한국민의 굳건한 정신이 응집된 독립운동의 산실입니다.

1911년 만주의 광활한 대지에 세워진 신흥무관학교는 수많은 독립군을 양성했습니다. 불의에 맞서 끝까지 항거한 선열들은 마침내 대한독립을 이루어 냈고, 대한민국 국군의 단단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독립의 염원을 가슴에 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15년 전 나라 잃은 설움에도 조국의 내일을 준비했던 선열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정치, 경제, 문화를 선도하는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신흥무관학교가 가르쳤던 나라 사랑과 공동체를 위한 희생정신은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강한 힘도,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도, 그 고귀한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신흥무관학교 설립 1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의 자리가 대한민국의 평화와 일상을 수호할 사관생도 여러분께도 의미 있는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19일
대통령 이재명